금주의 법구-〈법구경〉
욕망의 숲을 자르고
욕망에서 벗어난 자가 되어라.
그리고 영원한 자유를 찾아라.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23호 hyunbulnews.com (불기 2567년 음력 1월 25일) 2023년 2월 15일 수요일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진우)과 상월결사(회주 자승)는 2월 9일 오전 6시 서울 종로 조계사에서 '상월결사 인도순례 고불식'을 봉행했다. 사진은 순례단과 사부대중이 삼귀의를 하고 있는 모습.

'불교중흥 대장정' 상월결사 인도순례 첫 발

2월 9일 조계사서 고불식…대중 500명 순례단 환송

신성민 · 노덕현 기자

"상월의 정진이 불교의 중흥으로 나아가고 모든 생명이 차별없이 사회와 인류가 화합하고 평화로운 세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처님의 길에서 정진하겠습니다."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그 옛날 석가모니 부처님이 걸으셨던 길을 걸으며 수행 정진하는 상월결사 인도순례가 43일 대장정의 첫발을 내딛었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진우)과 상월결사(회주 자승)는 2월 9일 오전 6시 서울 종로 조계사에서 '상월결사 인도순례 고불식'을 봉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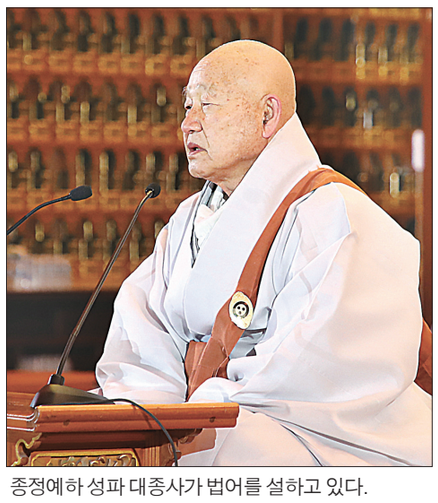
이날 고불식에는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를 비롯해 총무원장 진우 스님,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교육원장 혜일 스님, 동국대 이사장 성우 · 상임이사 성월 ·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 교구본사 주지 스님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운집했다.

특히 주호영 · 김기현 · 조명희 · 송언석 · 김형동 · 이주환 · 김희곤 · 황보승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원욱 · 김영배 · 민병덕 · 이수진(비) · 권인숙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 등 정관계 인사들도 조계사를 찾아 순례의 시작을 축하하고 원만회향을 기원했다.

고불식에서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순례의 원만성취를 기원했다. 이번 순례가 "불교사상 유래가 없는 대작불사"임을 밝힌 성파 대종사는 "인도 성지순례는 일반적인 순례와 달리 우리 불자들의 본분인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을 그대로 실현하는 것"이라며 "안으로는 자아를 완성하는 진리를 깨닫고 밖으로는 모든 중생의 평화와 안락을 도모하는 행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거룩한 행사에 모쪼록 처음부터 끝까지 무장무애 원만성취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최고령 참가자인 前호계원장 무상 스님은 순례 대장정의 시작을 부처님께 알렸다. 무상 스님은 고불문에서 "부처님께서 뭇 생명들에게 앞서 다가가셨듯이 인도순례단은 같은 마음으로 같은 길을 따라 길 위에서 자고 먹으며 부처님과 함께하고자 한다"면서 "각자는 일생일대의 더없는 수행의 기회로 삼고 모두는 불교의 희망과 수행과 원력을 이끌게 하는 더없는 계기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종정예하 성파 대종사가 법어를 설하고 있다.

1167km 붓다로드 순례시작 알려
"상구보리 하화중생 실천과 같아"
종정예하 성파 대종사 법어 설해
순례단 "불퇴전 정진할 것" 다짐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환송사를 통해 순례단의 공덕을 수희찬탄했다. 진우 스님은 "부처님의 나라 인도에서 1167km, 약 삼천리 길을 걸어서 순례한다는 것은 일찍이 그 누구도 발원하지 못했던 전인미답(前人未踏)의 일"이라며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팔만사천 법문을 펼치셨던 그 현장을 직접 걷는다는 것은 불제자들에게 더할 수 없는 기쁨이요 영광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순례 대중은 발원문을 통해 물러섬이 없는 정진을 다짐했다. 순례단은 "저희 상월결사 순례단원들은 당신이 걸으셨던 인도의 흙길을 너와 내가 한발 한발 묵묵히 걸으며 이름 없는 들풀 하나 소리 없는 돌멩이 하나에도 불성이 깃들어 있음을 깨달아 뭇 생명 모두의 안락을 위해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고불식을 마친 순례단은 500여 사부대중의 환송 속에 인도로 출발했다. 2월 10일 인도에 도착하는 순례단은 현지에서 마지막 채비를 마치고, 2월 11일 부처님의 설법지인 인도 사르나트 녹야원에서 입재법회를 봉행한다. 〈입재법회 차주 상보〉

'생명존중, 붓다의 길을 걷다'를 슬로건으로 봉행되는 상월결사 인도순례는 비구 56명, 비구니 12명, 우바새 6명, 우바이 6명 등 총 108명의 순례단이 목조부처님을 모시고 순례를 진행한다. 이들은 부처님 8대 성지와 1167km를 43일 동안 걸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길 예정이다. 또한 한국과 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아 조계종이 주최하는 다양한 문화교류행사들도 진행된다.

한편, 현대불교신문은 노덕현 편집국 부장이 상월결사 인도순례를 동행 취재한다. 노덕현 부장은 인도 현지에서 순례단의 생생한 소식을 전달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3면〉

사 령

명) 편집국 대기자 박재완
명) 편집국 부 장 노덕현
명) 편집국 차 장 임은호 2023년 2월 1일 부

www.boryeon.com

도량장엄 전문기업
보련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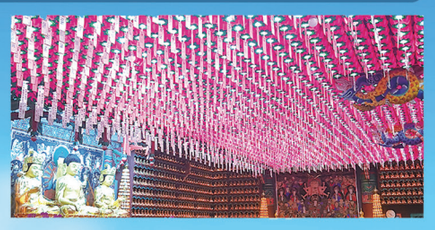
도량장엄등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등자동승강장치
원불전, 인등, 위패
각종 시설물 제작·시공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문현로 189번길 27

도 량 장 엄 등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 등 자 동 승 강 장 치


원 불 전


인 등

위 패
